

2007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 본회에서는 홈페이지(www.worldTBday.knta.or.kr)에서 "나에게 결핵은"이라는 주제로 결핵수기공모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중 총 10편의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매월 게재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굳건한 신뢰

글: 김가영(가명)

2006년 6월, 대한민국 정예 고3 시절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보건실에서 나를 찾는다. 담임선생님의 말씀을 듣고는 굉장히 의아해 하며 교실을 나섰던 기억이 난다. 보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보건선생님은 내 가슴에 달린 명찰을 보시고는 조심스럽게 나를 의자에 앉히셨고 표가 그려진 A4용지를 주시면서 말을 건네셨다. 내가 바라본 그 종이의 내용은 한 달 전 결핵협회에서 찍은 X-ray검사 결과였고 그 곳에서 난 내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과는 '폐결핵 중등증', 순간 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건 육군사관학교였다. 고 1때부터 쪽 사관생도라는 미래만 바라보고 지내온 나에게 결핵 진단은 그 꿈을 포기하라는 통지나 다름없었다. 그런 생각이 듣자마자 보건선생님께 여쭙었다. "선생님, 치료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선생님께서는 6개월 정도면 된다고 하셨지만 이미 그때면 입시전형은 끝나 있을 때였다. 얼마 전 육사입시설명회를 다녀오면서 그동안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내 모습을 다그치며 맘을 다 잡았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제는 신체검사에서 떨어질 거라는 생각에 화가 났다. '왜 하필 나일까?'

병에 걸렸다는 사실보다 내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에 오랫동안 좌절했었다. 친구들에게 쉽게 얘기할 수도 없었고, 부모님께는 걱정하실까봐 내색하지 못했다.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그 흔한 가래도 나오지 않았고, 식은 땀은 커녕, 식욕도 떨어지지 않았었는데, 육사를 지원하려고 1학년 때부터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꾸준히 체력단련도 해왔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일어나야 했다. 잠시 넘어진 것뿐이니까. 마라톤에서 넘어졌다

고 포기하는 선수보다는 씩 웃으며 다시 일어나 뛰는 선수가 멋진 것처럼, 나에게도 아직 수능이라는 마라톤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다시 일어나서 웃으며 달려야 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타지로 나와 기숙사 생활을 하며 이보다 더 힘든 일도 겪은 내가 '이 까짓 거에 질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체력검정을 준비할 때 보다 더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1개월 마다 보건소에 약을 타러 갔었고, 2개월 간격으로 X-ray를 찍었다. 의사선생님께서 X-ray필름을 비교해서 보여주시길 때마다 스스로 내 폐에 흰 음영이 사라지는 걸 보며 몸이 아닌 눈으로 호전 상황을 알 수 있었다.

투병생활을 하면서 얻은 것이 있다면 결핵에 대한 많은 지식과 주위사람들의 따뜻한 사랑이었다. 한달에 한번, 보건소에 갈 때마다 나는 의사선생님께 이것저것 결핵에 대한 궁금증을 여쭙보았고 선생님께서도 친절히 답해주셨다. 활동성과 비활동성 결핵의 차이점, 전염여부 등등. 그래서 병이 완치될 즈음에는 조금 과장을 보태어 결핵에 관한 박사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매년 12월 즈음이면 샀던 크리스마스 썰이 결핵 치료에 쓰여서 내가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내가 수집하고 있던 썰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앞으로 더욱 열심히 수집해야겠다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다. 얼마 전 TV에서 크리스마스 썰을 처음 만든 사람이 외국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얼마나 신기 했는지...

그렇게 그 해 겨울이 지나갔고 동기들이 육사에 합격하고 가 입교 훈련을 받는 걸 인터넷 사진으로 지켜보았다. 3년 동안 바라봤던 내 꿈은 지금은 잠시 보류되었지만 그로 인해 새로 찾게 된 지금의 대학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투병생활 때문에 나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짐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나에게 대한 굳건한 신뢰가 생겼다. 항상 재발에 대한 불안감을 감출 수 없으면서도 건강하게 그리고 씩씩하게 지내고 있는 내 모습이 그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바야흐로 꽃피는 봄이다. 봄의 따뜻한 기운으로 결핵의 차가운 고통을 치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 까? 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우연히 알게 된 '세계결핵의 날' 바로 오늘, 나의 지난 과거를 잠시 되돌아보며 몸도 마음도 많이 아팠지만 지금은 웃으며 추억할 수 있게 된 지난 병력으로 나를 다시 다잡는다. ㅈ